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오해와 진실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산출액 중 인건비로 귀속되는 비율을 나타낸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평균 10%p 정도 낮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가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출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비중을 감안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불과 3%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산정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노동소득분배율(Labor Income Share; LIS)은 요소국민소득 중에서 피용자보수(Employee Compensation; EC)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LIS_1 = \frac{\text{피용자보수}}{\text{요소국민소득}} \times 100$$

$$= \frac{\text{피용자보수}}{\text{피용자보수} + \text{영업잉여} - \text{고정자본소모}} \times 100$$

-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약 7~10%p 가량 낮은 60% 수준
 - 2012년 기준 OECD 주요국 평균에 비해 약 7.4%p 낮은 60.3%
 - 덴마크(79.3%), 스웨덴(76.7%)에 비해 15~20%p 가량 낮은 수준
 - 이탈리아는 유사하며 그리스보다는 10%p 가량 높은 수준
 - 농업어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용자 비중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
 - 1970년대 중반 이후 피용자 규모 확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
 - 경제활동인구 중 피용자(자영업 제외) 비중 상승: 37.2%(1970) → 69.5%(2012)
 - 같은 기간 노동소득분배율은 40.5%에서 60.3%로 약 20%p 가량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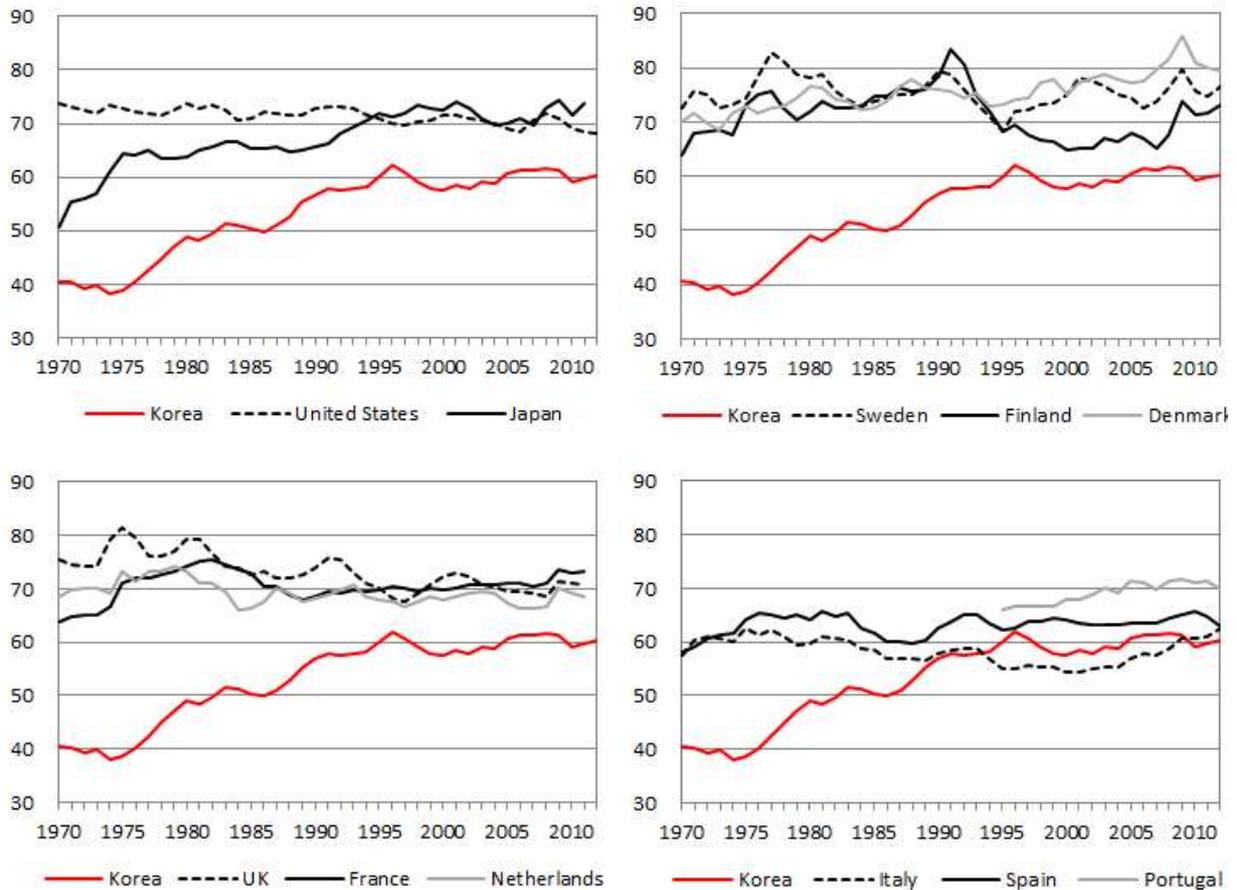
<표 1> 노동소득분배율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한국	40.5	49.0	56.8	57.6	59.1	59.8	60.3
미국	73.8	73.9	72.7	71.4	69.2	68.5	68.1
일본	50.6	63.9	65.6	72.6	71.5	73.8	-
영국	75.6	79.2	73.9	72.3	70.9	70.6	-
프랑스	64.0	74.3	68.7	69.9	72.9	73.4	-
스웨덴	72.5	78.3	79.4	75.1	75.6	74.9	76.7
핀란드	63.8	71.8	78.6	64.9	71.4	71.6	73.1
덴마크	70.0	76.7	76.0	75.1	80.9	80.2	79.3
네덜란드	68.4	73.2	68.2	68.0	69.3	68.4	-
이태리	57.7	59.7	57.9	54.5	60.6	61.1	62.7
스페인	58.1	64.2	62.4	64.1	65.6	64.9	63.0
포르투갈	-	-	-	67.8	71.2	71.5	69.7
그리스	30.1	37.5	43.8	44.3	49.7	50.2	49.3
평균	62.2	68.4	67.9	66.7	69.1	69.1	67.7

자료: OECD.Stat에 근거한 계산

주1: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산술평균

<그림 1> 주요국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자료: OECD.Stat에 근거한 계산

□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감안할 경우 OECD 주요국과 유사한 68% 수준

-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계산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과소 추정

-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구분이 어려워 피용자보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방식
-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우 실제 노동소득분배율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큼
- Gollinn(2002)¹⁾에 따라 자영업자도 피용자와 동일한 평균 노동소득을 얻는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정·비교하여야 함

-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감안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67.9%로 OECD 주요국 평균에 비해 불과 3.1%p 낮은 수준

-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감안 시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67.9%로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7.6%p 상승
- 2012년 기준 덴마크(78.6%), 스웨덴(75.9%)에 비해 약8~10%p 가량 낮지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차이는 크게 축소
- 스페인, 이태리와 유사하며 그리스보다는 약 7%p 가량 높은 수준

<표 2>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자 포함)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한 국	63.6	67.0	68.4	68.3	67.0	67.5	67.9
미 국	75.8	75.7	74.4	73.0	70.7	70.0	-
일 본	61.1	71.1	71.0	76.1	74.1	76.0	-
영 국	77.1	80.5	76.9	75.0	73.9	73.6	-
프 랑 스	69.2	77.4	71.6	71.9	74.8	75.3	-
스 웨 덴	74.7	79.7	81.0	77.1	77.7	76.9	78.6
핀 란 드	-	75.4	81.3	68.1	74.3	74.4	75.9
덴 마 크	74.5	-	78.2	76.7	82.2	81.6	-
네덜란드	-	75.6	70.9	70.5	72.6	-	-
이 태 리	-	67.3	65.6	62.5	67.3	67.6	69.1
스 페 인	68.0	71.5	68.9	69.0	69.6	68.9	67.4
포르투갈	-	-	-	74.0	76.2	76.0	74.6
그 리 스	-	-	59.9	57.8	60.5	61.3	60.6
평 균	71.5	74.9	72.7	71.0	72.8	72.9	71.0

자료: OECD.Stat에 근거한 계산

주1: 자영업자도 피용자(임금근로자)와 동일한 평균 노동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

주2: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산술평균

1) Gollin(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02, vol. 110, no. 2, pp.458~474.

<그림 2>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자 포함)

